

[하느님의 이름]

매일 미사에 기록된 독서와 복음을 읽어가는 데에 익숙한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전체를 읽는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평생을 살면서 글썽요, 정성으로 성경 전체를 읽어 본 것이 두 세번 정도나 될까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금년에는 꼭 성경통독을 해야지.” 결심을 하고 창세기를 시작하여 탈출기를 신나게(?) 읽고 레위기에서 속도가 느려지고 민수기쯤 가서 덮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참 허다했었습니다.

그런 반복 속에서 두 세번 성경 통독을 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구약을 읽으며 문득 “아니 하느님께서 인간들에게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 달라’ 고 절규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하느님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왜 이러시는 것일까???” 가슴이 짱~ 하게 울리며 “하느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같은 말씀을 처절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가슴 속에 맺혀짐을 느꼈습니다..

“하느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이러시는 것일까? 천벌을 내리셔서 혼쫓을 내주시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하실 텐데... 나도 자식들이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절규하듯 나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려 할까? 정말 완전한 하느님이 왜 이렇게 인간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일까? 이것이 완전한 사랑의 필연적 반응작용이라고 들 말들을 하지만...”

나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 주시어, ~~~”라는 말씀을 별 느낌 없이 습관적으로 읽곤 하였는데, 문득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의 말씀의 진한 느낌이 마음 가득히 차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벌써 10년도 넘었나 봅니다. Woodbridge 에 있는 Mt. Carmel 성당에서 당시 한국에서 오셔서 사목 하시던 김홍태 베다 신부님이 성경공부를 시켜 주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50여명이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탈출기 3장 13절 이하에서 모세가 하느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느님께서 “나는 있는 나다. (I am who I am.)” 라고 하시며 이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 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고 하라고 하시지요.

하느님의 이름 “아훼”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있는 나” 라고 번역하였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이 이름을 들으며 ‘참 공허하다!’ 는 느낌을 늘 갖고 있었는데,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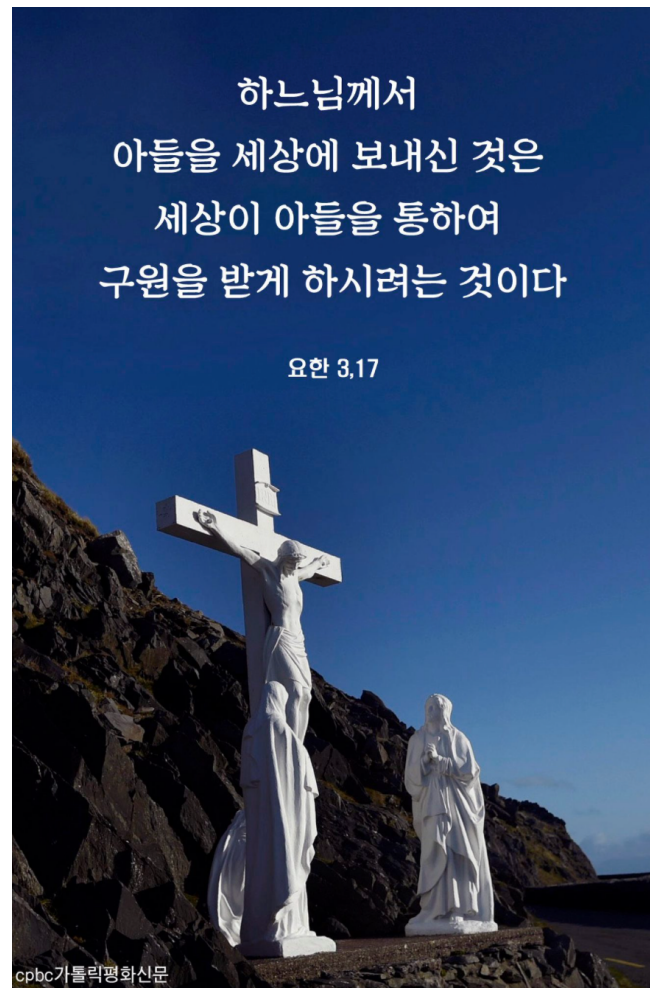
현대의 일부 성서학자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모세 시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정서로 번역을 한다면 아마도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있는 나”, “나는 너희들 때문에 있는 나”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말한다고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 맞아. 그래.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렇듯이 절규하시며 당신의 존재를 인간에게 알려주시려 하셨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탄성을 질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느님이 참으로 가까이 계신 분으로 생각되며 “정말 아버지시구나” 하는 느낌으로 “하느님 아버지” 의 이미지가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왜 하느님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하느님이다.”라고 반복하여 외치셨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참 아버지로서 제 안에 살아 계실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계시는...”, “나 때문에 계시는 ...”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임문수(마르코)



부활 제 4주일
성소 주일
2023년
04월 30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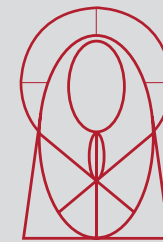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선한 목자> 1660년경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사도행전2,14-7.36-41
- # 화답송 시편 23(22),1-3-7.3-4-4.5,6(©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 제 2독서 베드로 1서 2,20-25
- # 복음 환호송 요한 10,14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 복음 요한 복음10,1-10
<나는 양들의 문이다.>
- # 성가번호 입당 51 봉헌 221 성체 175 파견 132

새로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 문명선 - 가족, 박재영(요아킴)
- 백봉화 - 가족, 오경선(원선시오) 가족, 박락준(베드로), 손홍구(바오로), 손영학(빈첸시오), 박재영(요아킴), 오용덕(헨리코), 어부들마을

- 이석종(스테파노)
- 추성태(바오로)
- 김진철(요한)
- 김경희(수산나)
- 김명자(헬레나)
- 김상기(요셉)
- 이동현(요셉)
- 최예생 - 김 스텔라
- 정창웅(그레고리오) - 가족, 오용덕(헨리코)
- Kelsey Downey - 허 아나스타시아
- 최병옥 - 이명호(비비안나)
- 낙태된 아이들의 영혼 - 염 세실리아

미사지향 (생미사)

- 이용범(사도요한) 신부님 - 사목회, 주일학교 & 유스그룹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김중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방상호(요한) - 임 안나
- 방진숙(테레사) - 임 안나
- 하준석(마태오) - 허종(미카엘)
- 오은주(로사) - 서 엘리자벳
- 이종실(프란치스코) - 서경호(대건 안드레아)
- 정명숙(테레사) - 채미영(테레사)
- 박재영(요아킴) - 주일학교 & 유스그룹
- 오현주(요한) - 주일학교 & 유스그룹
- 추해웅(오스틴) - 주일학교 & 유스그룹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4/23 주일 헌금 (151명).....	\$1,497
• 감사헌금 (익명).....	\$500
• 교무금	\$1,280
이금주(5) 추승호(3-4) 성낙순/성순영(1-12)	
정진오(1-6) 이숙희(1-6)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4/21까지 약정 금액은 \$32,010.14 (목표금액의 86.51%)입니다.
- 메타천 교구내의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3 Bishop's Annual Appeal 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 곽 율리안나 방진숙(테레사)

2차 헌금

- 4월 30일: Catholic Relief Services & Native/ Black American Collection
- 5월 7일: Development of the People (동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선교 지원)

성당 건물 관리를 위하여, 주일 한국어 미사 후에는 엘리베이터 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밖에서 잠글 예정이오니 성당 문단속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2023년 5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어머니날을 맞이하여 미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예비자 교리서(\$8/권) 구매 신청하신 분들은 이서형(요안나) 선교 분과장님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썸머셋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4월 30일(주일) 친교실

요셉회 모임

- 일시 및 장소: 5월 7일(주일) 친교실 회의실

사우스브런스윅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5월 7일(주일) 친교실

올드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 및 장소: 5월 7일(주일) 친교실

사목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14일(주일) 친교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5월 21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회의실

유스그룹 주관 제 1회 OLM 탁구 토너먼트

- 일시 및 장소: 4월 30일(주일) 오후 1시 친교실
- 참가비: \$5/인
- 다양한 상품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미공동체도 함께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모회 떡볶이 판매

- 탁구 토너먼트 행사 동안 자모회에서 떡볶이(\$5) 를 판매합니다.

본당 유지 관리 현황 (County FD 점검 후 후속 조치 중)

- 천장으로부터 18인치 공간을 두고 친교실 선반 짐 적재 완료
- 청소도구 보관실 조명 설치 완료
- 성당 비상구 표시등 점검 및 수리 완료
- 비상시 대비 및 대응 절차서 확립 중

유스그룹 커피 쿠폰 판매

- 유스그룹 학생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캡슐커피 스테이션을 친교실에서 운영중이오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2,14-36-41

오순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뚫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삼천 명가량 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베드로 1서1,17-21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 내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받는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 복음10,1-10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게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김현수 프란치스코 신부

“나는 양들의 문이다.”

흔히 알려진 온순한 양의 모습 이면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눈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으며, 잘 넘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 양은 청각이 매우 발달하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목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 하십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양 떼들입니다. 사제이건, 수도자이건, 평신도이건,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양 떼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주님의 양 떼가 아니라, 그 양 떼를 흠여버리는 도둑이자 강도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누군가에게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올라올 때 뒹뒹함을 서슴치 않고, 때론 무관심으로 공동체의 모습을 외면할 때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우리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내가 마치 또 하나의 목자가 되어버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참된 목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순간 목자의 부르심에 가까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복음에 드러난 양과 같이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목자의 음성에게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짐해 봅시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대전교구)

말씀 나눔

말씀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1. “부르심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었나요? 그때 나는 무엇이라고 응답했었나요?
2. 착한 목자를 따르기 위해 참된 양으로서의 내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나는 양들의 문이다.” (요한 10,7)